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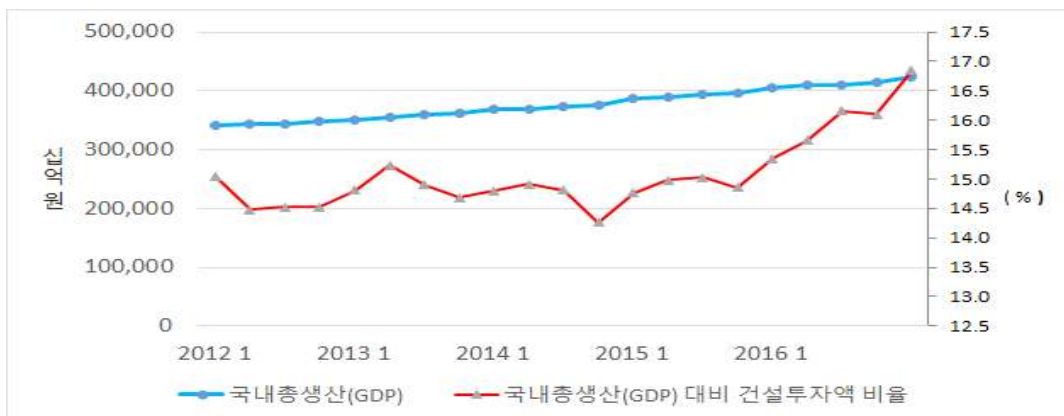
2017년 6월 전문건설 경기동향

I. 건설동향

□ 경제동향

○ 금년 경제성장률 개선에 대한 기대가 커짐

- 국내·외 주요 기관들은 한국의 금년 GDP성장률을 상향조정하며 일각에서는 최대 3%의 성장률도 예상하고 있음. 하지만 수출과 설비투자의 지속과 달리 건설투자가 하반기 이후로 부진할 것이란 전망에 맞춰 관련 선행지표들이 부진한 것으로 집계되는 현 상황을 주시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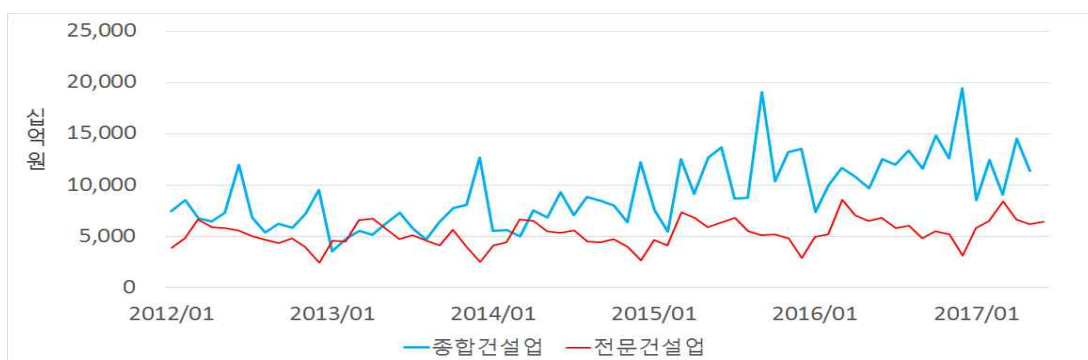


< 최근 5년간의 국내총생산(GDP)과 국내총생산(GDP)대비 건설투자액 비율 추이 >

□ 건설수주

○ 2017년 5월의 건설수주는 감소

- 5월 건설수주는 전월 대비 22.0% 줄어든 11조 3천억 원 수준으로 나타남. 세부적으로는 전월 대비 공공공사가 20.4%, 민간공사는 18.8% 감소함.



< 최근 5년간의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수주액 추이 >

## II. 전문건설 경기 동향

### □ 전체 수주실적

#### ○ 2017년 6월 전문건설업 수주는 전월 대비 소폭 증가

- 전체 수주금액은 지난 5월보다 약 4% 증가한 6조 4천억 원 수준으로 추정됨 (전년 동월의 약 95% 수준). 이는 주택중심인 기존 수주물량들의 후행공종 등이 진행되면서 실내건축공사업 등 관련 전문건설업종의 수주가 늘어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 원도급은 전월보다 약 18% 늘어난 1조 9천억 원 규모로(전년 동월 대비 약 10% 감소), 하도급은 전월 대비과 유사한 4조 4천억 원 규모로(전월 대비 약 1% 감소, 전년 동월 대비로는 약 13% 감소) 추정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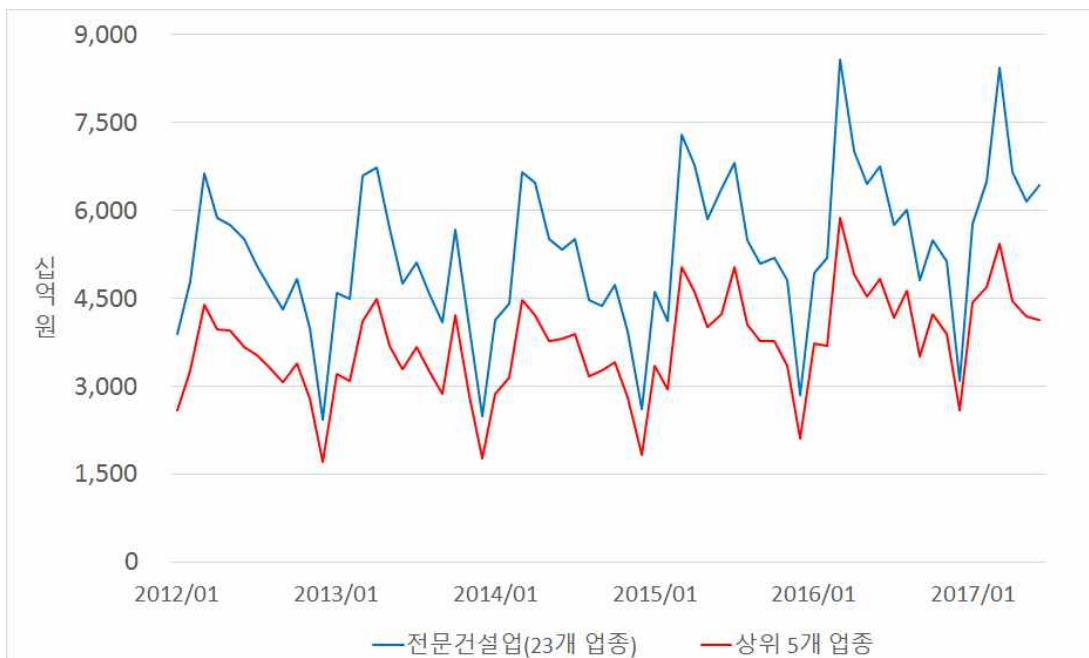
### □ 상위 5개 업종별 수주실적

#### ○ 선행공종인 철콘과 토공사업의 수주액은 전월 대비 크게 감소, 후행공종인 실내건축과 금속창호, 미장방수의 수주액은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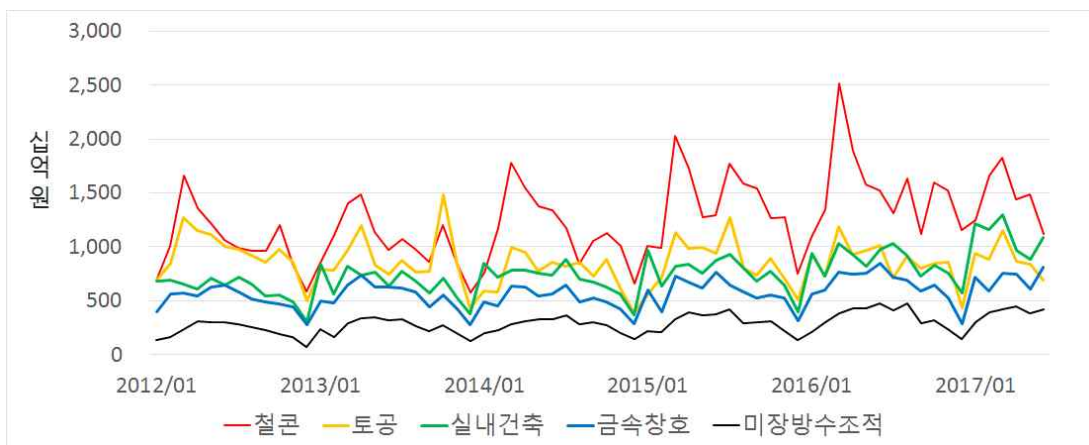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전체 수주금액은 전월 대비 약 25% 감소, 전년 동월 대비 약 27% 줄어든 1조 1,16억 원 수준으로 추정됨.
- (토공사업) 전체 수주금액은 전월 대비 약 18% 감소, 전년 동월 대비 약 32% 줄어든 6,950억 원 수준으로 추정됨.
- (실내건축공사업) 전체 수주금액은 전월 대비로는 약 23% 증가, 전년 동월 대비로는 약 11% 늘어난 1조 900억 원 수준으로 추정됨.
-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전체 수주금액은 전월 대비 약 34% 증가, 전년 동월 대비로는 약 4% 줄어든 8,090억 원 수준으로 추정됨.
- (미장방수조적공사업) 전체 수주금액은 전월 대비 약 11% 증가, 전년 동월에 비해 약 11% 줄어든 4,230억 원 수준으로 추정됨.

※ 참고 1: 전문건설업 상위 5개 업종의 수주현황

- 최근 5년간 상위 5개 업종의 공사수주액은 전문건설업(23개 업종) 전체 수주액의 약 70.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단, 전문건설업의 수주실적은 대한전문건설협회가 회원사들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연 1회의 실적신고를 통해 집계됨에 따라, 2017년 1~6월의 전문공사 실적은 대한전문건설공제조합의 공사보증금액(해당 기간)을 근거로 산정한 추정치임을 유의해야 함.



< 전문건설업(23개 업종) 전체 수주액과 상위 5개 업종의 수주현황 비교 >



< 최근 5년간 전문건설업 상위 5개 업종의 수주현황 >

※ 참고 2: 국내 건설업 총 수주액과 전문건설업 공사수주액 비교

(단위: 십억 원)

	국내 건설업 총 수주액	전문건설업 전체 수주액	원도급 공사 수주액	하도급 공사 수주액
2015.4	9,100	6,781	1,856	4,925
2015.5	12,640	5,862	1,424	4,438
2015.6	13,641	6,365	1,627	4,737
2015.7	8,681	6,808	1,382	5,426
2015.8	8,767	5,492	1,104	4,388
2015.9	19,046	5,102	1,132	3,970
2015.10	10,387	5,191	1,272	3,919
2015.11	13,244	4,814	1,061	3,753
2015.12	13,517	2,853	655	2,199
2016.1	7,339	5,141	1,337	3,602
2016.2	10,002	5,313	1,161	4,024
2016.3	11,666	8,753	2,143	6,429
2016.4	10,850	7,192	1,868	5,148
2016.5	9,656	6,637	1,623	4,835
2016.6	12,507	6,912	1,624	5,129
2016.7	11,991	5,847	1,358	4,396
2016.8	13,372	6,182	1,231	4,782
2016.9	11,607	4,945	1,009	3,809
2016.10	11,607	5,769	1,285	4,213
2016.11	12,563	5,321	1,152	3,987
2016.12	19,428	3,344	709	2,387
2017.1	8,551	<b>5,783</b>	<b>1,257</b>	<b>4,504</b>
2017.2	12,437	<b>6,492</b>	<b>1,635</b>	<b>4,858</b>
2017.3	9,062	<b>8,436</b>	<b>2,733</b>	<b>5,775</b>
2017.4	14,531	<b>6,653</b>	<b>1,887</b>	<b>4,741</b>
2017.5	11,332	<b>6,149</b>	<b>1,629</b>	<b>4,510</b>
2017.6	-	<b>6,431</b>	<b>1,920</b>	<b>4,476</b>

주1: 2017년의 전문건설업 수주액은 전문건설공제조합의 보증실적자료를 바탕으로 한 월별 추정치 임에 따라 전체 수주액과 원도급 및 하도급 공사의 합계에 차이가 있음

주2: 추정치의 경우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기존 공사의 증액은 증액시점에 발생한 신규 수주액으로 간주함

주3: 국내 건설업 총 수주액은 한국은행의 자료임(2017.7 기준)

참고 3: 전문건설업 상위 5개 업종의 월별 수주실적 추이

(단위: 십억 원)

	철근 콘크리트 공사업	토공사업	실내건축 공사업	금속구조물 창호공사업	미장방수 조적공사업
2015.4	1,723	987	837	669	393
2015.5	1,278	994	751	616	365
2015.6	1,290	936	876	761	377
2015.7	1,774	1,273	926	645	423
2015.8	1,583	797	801	580	294
2015.9	1,537	732	679	522	296
2015.10	1,261	892	770	548	307
2015.11	1,274	704	642	522	218
2015.12	753	509	395	313	138
2016.1	1,087	934	941	558	210
2016.2	1,348	729	723	594	298
2016.3	2,514	1,189	1,034	763	383
2016.4	1,892	927	926	742	430
2016.5	1,573	964	816	756	431
2016.6	1,527	1,014	979	842	472
2016.7	1,310	713	1,026	716	411
2016.8	1,635	909	922	690	472
2016.9	1,115	797	731	588	288
2016.10	1,592	846	829	646	318
2016.11	1,524	854	755	523	238
2016.12	1,158	435	567	285	147
2017.1	<b>1,250</b>	<b>940</b>	<b>1,220</b>	<b>720</b>	<b>300</b>
2017.2	<b>1,660</b>	<b>890</b>	<b>1,160</b>	<b>590</b>	<b>390</b>
2017.3	<b>1,830</b>	<b>1,150</b>	<b>1,290</b>	<b>750</b>	<b>420</b>
2017.4	<b>1,440</b>	<b>860</b>	<b>970</b>	<b>750</b>	<b>440</b>
2017.5	<b>1,490</b>	<b>840</b>	<b>890</b>	<b>600</b>	<b>380</b>
2017.6	<b>1,116</b>	<b>695</b>	<b>1,090</b>	<b>809</b>	<b>423</b>

주: 2017년 1~6월 수주액은 전문건설공제조합의 보증실적자료를 바탕으로 한 월별 추정치임

문의: 이은형 (책임연구원, eunhyung@ricon.re.kr)